

#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

## 책을 통해 본 지방자치 1년... 문화적 관점에서의 행정 혁신 요구

본격적인 지방자치제 실시 1년을 맞아 다양한 관련서적이 나왔다.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민선 자치단체장의 현장경험담 및 사례모음과 전문 연구자들이 쓴 이론 지침서가 그것. 이 책들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보여주며,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한다.

### 현장의 애환담아

《구청장, 구청장, 우리 구청장》(중앙일보사)은 서울시 민선 구청장들이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의 현장에서 체험한 애환을 담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에 쏟은 구청장들의 열정이 녹아 있는 이 책은 민원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노력이 단연 돋보인다.

장대비가 오면 상습 침수지대에서 주민과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일(박훈, 동대문구)은 기본이고, 구민복지를 위해 경찰서 앞에서 단독 연좌시위(유영, 강서구)도 서슴지 않는다. 25인승 승합차를 개조한 이동구청장실(진영호, 성북구)을 이용해 현장주의의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치기도 한다.

각 자치구 나름의 내규를 정해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점도 지방자치 원년의 특색. 금천구(반상균)는 구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친절봉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이고, 은평구(이배영)는 전문과 5개 항목으로 이뤄진 구민현장을 제정해 예결준수와 노인공정, 자연보호, 민주시민 의식배양, 건전한 생활문화 조성에 진력하고 있다. 양천구(양재호)에서는 공무원 자치현장을 통해 일선 공무원이 지방자치를 꽃피우는 주역임을 강조한다.

《구청장, ...》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행 이후 서울시에서 벌어진 변화의 일면을 보여준다면, 《지방자치시대의 행정변화》(한국지방행정연구원)는 전국적인 양상을 드러내 준다. 지난해 6·27 지방선거 이후부터 올 6월까지 나온 각종 지침 및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 수집한 지방자치관련 행정변화 사례를 모았다.

행정변화의 첫 단추는 조직개편. 자치단체가 처한 환경에 걸맞은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기구와 인력의 재조정이 이뤄지고



지방자치 1년을 되돌아보는 책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있다. 부산시의 일선 구청들은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행정직제의 명칭을 바꾸고, 획일적으로 편성된 직제도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통폐합 또는 신설했다.

행정실명제·민원후견인제·주민투표제 등의 새로운 행정제도 시행 역시 행정변화를 실감케 하는 대목. 민원서류에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표시하는 민원행정실명제는 삼척시와 군산시에서 시행중이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인 주민투표제를 통해 서울시 강남구는 올림픽대로변에 설치할 방음벽의 형태를 결정했고, 광주시는 호남고속도로 우회도로와 서방지하상가 사업을 주민투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 관치행정과 자치행정 결합 필요

첫술에 배부르랴. 아직 걸음마 단계인 지방자치는 시행착오도 없지 않다. 《지방자치와 우열의 법칙》(한국경제신문사)은 마지막 임명직 시장이었던 박상돈씨(충남도의회 사무처장)가 민선 단체장에게 주는 '훈수'다. 박처장은 "양성잡종에서 두 쌍의 대립형질에 대한 유전방식은 제1대 잡종에서는 우성의 형질들만 나타난다"는 멘델의 유전법칙을 빌려 관치행정과 자치행정의 절묘한 결합을 주장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민선과 관선의 결합만큼 관선자치는 악이고, 민선자치는 선이라는 도식적 구분은 금물이라는 것이다.

박처장의 지론은 대전시장 재임시절 재정확충을 위해 벌인 일련의 사업을 통해 설득

력을 얻는다. 해수욕장의 진흙을 이용해 만든 머드팩 수익사업, 가로공원 조성시 지역 출신 영화배우의 동상 건립을 통한 부대효과 창출 등은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귀중한 선례다.

《초일류 자치단체를 만들자》(한국지방자치연구원)는 일등 자치단체가 아니라 처한 환경에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잠재력을 활용해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초일류 단체를 만드는 데 주요 리더그룹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주요 리더그룹으로 자치단체장·지방회의의원·일선 공무원을 상정하고, 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바를 명시했다. 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총괄 책임자로 현장감각과 민주적인 지도력을 두루 갖춰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방회의의원은 과거의 낡은 권위주의·획일주의·지역이기주의를 배격하고, 양

보와 관용으로 협상하는 한편 열정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에 발맞춰 지난해 5월 월간 《자치공론》을 창간,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있기도 하다.

### 문화가 바탕이 되는 지방자치 왜야

《지방자치를 알면 21세기가 보인다》(보림)는 지방자치실시 이후의 사회변화를 진단한 예측서. 정치·행정·사회·경제·문화 등 각 분야별로 지자체가 정착된 미래의 모습을 전문가들의 눈을 통해 바라봤다. 영향이 정치·행정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문화, 그리고 교육에까지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오리라는 것은 이들 관련서적의 공통된 주제다. 이는 문화가 바탕이 되는 지방자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의 추구로 요약되는데, 이 책은 그러한 논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사회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는 남성이 '회사인간'에서 '지역 활동가'로 복귀하는 것이다. 남성이 생산활동에 매달리는 동안 지역사회는 여성의 사회활동 근거지였다. 주5일 근무 등의 사회여건이 남성으로 하여금 지역문제에 눈을 돌리게 하고, 지방자치는 이러한 변화를 촉진시켜 지역을 살리고 인간화시킨다. 시민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고 문화의 교류와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행정은 시민문화를 성숙시켜 행정의 문화화를 추구한다. 행정의 문화화는 문화의 관점에서 이뤄지는 행정혁신이다. —최성일 기자

## 새로운 교육의 꿈 '열린학교'

### 실험학교·열린 학급 등 새로운 교육의 사례 담아

획일적인 커리큘럼으로 개인의 창의성이나 개성은 말살당하고, 입시를 겨냥한 지식 습득에 치중해 인성교육에는 전혀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새로운 학교, 새로운

교육을 꿈꾼다. 이러한 꿈은 때로는 현실화하기도 하고 때로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한데 모아 '일'을 도모하게도 한다. 최근 서점가에는 '새로운 교육' 사례나 구상을 담은 책들이 속속 선보여 눈길을 끈다.

# 모여 책을 만들고 함께 미래를 열어갑니다

생각해보면 전문직의 세계는 작습니다.

그러나 작고 좁을지라도

그 생명력은 길고 오래갑니다.

서울편집디자인스쿨에는

전문직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있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해 소신을 갖고

평생하기를 원하는 사람,

어떠한 일에도 부러지지 않을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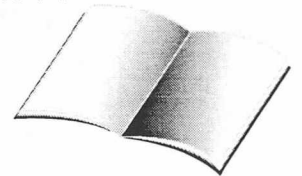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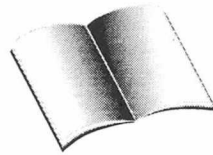
마지막에 잘했다고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서울편집디자인스쿨에 모여

책을 만들고,

함께 21세기를 열어갑니다.



## 편집 정규과정 41기 모집

구분	정규과정	주말정규과정	DTP특강과정
강의기간	5개월	5개월	8주
강의시간	오전반 10:00-13:00 오후반 14:00-17:00 야간반 19:00-22:00	토요일 15:00-21:00 일요일 10:00-16:00	오전반 10:00-13:00 오후반 14:00-17:00 야간반 19:00-22:00
정원	30명	20명	20명
강의요일	월·화·목·금	토·일	월~금

## 저작권법 실무 특강

WTO/TRIPS 발효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정된 저작권법이 1996년도 7월부터 새롭게 효력이 적용되고, 국제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지적소유권의 동향 파악과 출판 관련 실무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조항들을 집중 해설하고, 분쟁 사례를 분석하여 대응방법을 알아봄으로써 출판관련자의 자질향상과 위상정립에 기여하고자 유명 강사진을 초빙하여 특강을 실시합니다.

교육과목	개강	기간	수업시간	강사진
저작권법 해설 및 계약실무	9월 4일	10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9시	한승원 변호사 외 3명

▶ 서울편집디자인스쿨 수료생은 수강료 특별할인 혜택 부여

국내 최초 최대의 편집 교육기관  
사단법인 한국과학매체협회 지정 교육기관  
한국 출판학회 추천 교육기관

**서울편집디자인스쿨**  
문의(代) 672-1841~2, 633-1881~2 FAX 637-044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방향 100m  
24시간 자동응답안내 704-4450(100x)

입시 위주의 지식습득에 치중해  
인성교육은 도외시키고 있는  
우리교육 현실을 새롭게  
일구려는 꿈의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서점가에 선보인  
'열린 교육' 책들은 공동체적인  
새로운 인간형의 양성과,  
대상화돼 있던 학생들을  
교육주체로 회복시키자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실험학교 이야기》(보리)는 전충북대 교수 윤구병씨가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공동체와 그 중심을 이루게 될 학교의 모습, 교육과정, 교육형태들을 고스란히 담은 책이다. 실험학교는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자율적인 생산공동체를 바탕으로 아이들이 가장 풍부하고 훌륭한 교사인 자연으로부터 감각으로 배우고 일과 놀이를 통해 성장하는 곳이다.

##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

대학교수직을 버리고 변산으로 내려가 생산공동체의 터전을 마련하기에 바쁜 윤교수는 실험학교를 통해 한 사회의 생존형태, 철학의 전환을 토대로 이상적인 교육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 학교는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은 '구상' 속의 학교다.

반면에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는 현존하는 학교의 구체적인 이야기라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거창고등학교 이야기》(배평모 지음, 종로서적) 《전영창 이야기》(종로서적)는 전교생 5백90명의 소규모 시골학교가, 어떻게 전국 각지에서 학생들이 몰려드는 우수한 학교로 자리잡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 해준다.

졸업생의 1백%가 4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이 학교의 놀라운 성적은 이 학교가 '오직' 공부만을 외치는 학교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놀라움을 산다. 울타리도 문패도 없고, 눈오는 날이면 아예 수업이 없는 학교, 다양한 서클활동, 축제, 등반대회 등 일년내내 특별활동을 하는 이 학교는 학생

의 자율성과 개성을 인정하는 교사, 수업방식과 내용을 교사의 자율적 의지에 맡기는 학교측의 신뢰가 어떤 교육적 효과를 가져오는지 여실히 증명한다.

현행 교육제도 안에서 실험적으로 혹은 시범적으로 열린 학교, 열린 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초등학교가 많다. 지난 86년 학생 30명으로 개교한 운현초등학교의 실험적인 열린 교육 사례를 담은 《열린학교 열린교육》(은용기·길형석 지음, 대한교과서)이 있고, 영훈초등학교의 이야기는 박성방 교장이 쓴 《시험과 체벌이 없는 학교》(책과사람들)와 정기원 교사의 《365일 열린 교실을 위한 학급경영》(우리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전교생 김치먹기 운동, 동네 골목 호랑이 할아버지 추대 등 독특하고 참신한 교육방법을 활용, 공립학교로는 지난 89년 처음으로 열린 교육을 실시, 시범학교로 지정된 바 있는 평택 안중초등학교의 사례는 《열린 교육과 열애중인 여교장 이야기》(이계순 지음, 민)를 통해 들을 수 있다.

## 학생이 교육의 주체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최근들어 '열린 교육'을 내건 다양한 시도와 실천들이 부쩍 늘어났다. 이러한 실천들은 그 '열림'의 방향과 정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대개 두가지 양상으로 나누어진다. 기술중심, 경쟁주의적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이며 공동체적인 새로운 인간형을 양성하는 목표와 현행의 제도 안에서 새로운 교육방법을 개발하려는 '기술적인 시도'가 그것이다.

'실험' '시범' 등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열린 교육'이 어떤 것이라고 딱부러지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아직 확실치 않다. 그러나 "열린 교육이 최근의 세계화 논의 속에서 요구되는 '경쟁력' 있는 인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술의 혁신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열린 교육이 아니다. 대상화되어 있던 학생들을 교육주체로 당당하게 회복시키는 일이야말로 열린 교육의 첫번째 할 일"이라는 한 관계자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일이다.

—박남정 기자